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

2021년 10월 10일 설교
누가복음 4:14-21

설교 소개

이번 주에 저는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에 대한 2 주간의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성경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누가복음 4:14-21

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5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16 그리고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셨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니
17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이 기록된 곳을 발견하고,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
19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20 그리고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돌려주고 앉았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함께 이사야서 40 장 8 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상처받고 부서지고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분의 대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1: 예수께서 교회에 가셨다(눅 4:14-16)

포인트 2: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눅 4:17, 18a, 20)

포인트 3: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누가복음 4:18a-19)

포인트 1: 예수께서 교회에 가셨다(눅 4:14-16)

14 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5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지도에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360 년에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BC 63 년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유대 민족과 섞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이방인과 그들의 문화도 혼합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와 정부 당국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했고 그들의 땅을 점령한 이 군대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구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사람을 보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14 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15 절에 보면 여러 동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다니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목사와 같습니다.

랍비는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16 절: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니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소년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이제 그는 약 30 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그의 관습 또는 그의 규칙적인 관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당에 가는 것은 이 공동체의 영적, 문화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16 절에서 여러분이 가장 보기를 바라는 한 가지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Point 2**로 넘어갑시다.

포인트 2: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눅 4:17, 18a, 20-21)

17 절: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이 기록된 곳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 61 장을 읽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 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18 절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8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8a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읽으신 이 예언을 기록했을 때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1~2

1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으리라

2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사야서 11 장 1 절은 이새와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예언자 이사야가 언젠가 오실 이 특별한 주의 증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 강력한 구조자가 백성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14 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 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 절은 이 주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기름부음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기록한 사람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여호와의 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부음과 하나님의 영을 겸비한 사람에 대해 읽는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사무엘상 10 장 1 절과 6 절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1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 자기 기업의 왕으로 삼으신 표징이라...

6 그 때에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6:13 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림하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이사야 61 장은 언젠가 또 다른 왕이 올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오늘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 장에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특별한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참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10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울왕과 다윗왕처럼 기름부음과 성령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38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랍비 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왕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 장을 읽으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8 절과 19 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20 절: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도로 주고 앉으시니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 읽고 나서 앉으셨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군중에게 가르치고 연설합니다.

내가 지금하고있는 것처럼.

그런데 2000 년 전 어느 회당에서 한 랍비가 청중 앞에 앉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방은 조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21 절을 보십시오.

21 절: 또 이르시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700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수는 자신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인트 3입니다.

포인트 3: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누가복음 4:18a-19)

18a 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답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말의 가장 분명한 의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영하며 가난한 자는 밭에서 이삭을 주도록 하는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혁명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의미가 물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난, 노예, 정치적 압제, 질병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질병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는 그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옷장, 푸드뱅크, 의료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독재자와 비밀 경찰이 있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악인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유와 정의와 치유를 베푸시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오른쪽?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속박과 육체적인 맹목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범주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8b 절 “그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맹인이나 육체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서 바울은 영적 소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요한복음 8.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쁜 습관의 포로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습관은 때때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사슬에 묶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죄는 노예입니다.
때로는 자유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 결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실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 년 동안 무신론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내 자신의 욕망에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을 영적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구주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실명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구주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사슬을 풀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영적 사망에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필요한 문둥병자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는 회복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는 볼 필요가 있는 시각 장애인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고통은 그들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필요만 도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도우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어떻게 도울지 결정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질병, 빈곤, 압제와 같은 육체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암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감옥에 있는 죄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눈먼 사람은 육체적으로 눈먼 채로 남아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구세주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몸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의 육체적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사용하여 상처받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줍니다.

친구야,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영적 맹목과 노예 상태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임무로 파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낼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세상의 육신의 상함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먹이고 치유하고 도우셨습니다.
그는 죄와 죄가 세상에서 초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동일한 조합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상처를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오직 예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메신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는 희망과 영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